

미국 교환학생 체험 수기

Northern Arizona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

교환학생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출국이 불확실한 채로 준비했었다. 다행히 미국의 상황이 호전되어 노던 애리조나 대학교 (Northern Arizona University; 이하 NAU)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한 학기 (2021.08~2021.12) 동안 NAU에서 공부했으며, 짧은 기간동안 경험했던 것과 나의 주관적인 느낀 점에 대해 작성해보았다.

NAU 교환학생은 기존 학생들보다 일주일 정도 미리 기숙사에 입주한다. 그 일주일 동안 체크인하고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듣는다. 체크인 때는 학생증 발급과 의료보험 등록, 필요한 서류 확인 및 등록을 한다. 일주일 간 있을 오리엔테이션 주간의 스케줄표도 이때 나눠주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시간 맞춰 들으면 된다. 코로나 상황 때문인지라, 체크인과 캠퍼스 투어 외에는 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보통 국제학생들에게 Campus Heights라는 기숙사를 NAU 측에서 추천한다. 당연히 국제학생들 위주라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위치도 캠퍼스 정중앙으로 좋은 편이다. 나는 룸메이트는 꼭 NAU 학생으로 만나고 싶어서 Campus Heights 말고 South Village라는 기숙사에 입주했다. 캠퍼스 제일 남쪽에 있는 기숙사로 방 두 개에 작은 부엌과 거실이 있는 아파트 형태의 기숙사이다. 수업이 경영학과 빌딩에 많았던 나한테는 기숙사와 거리가 멀지 않아 이동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다. 그러나 도서관이나 학생 식당 (University Union)은 많이 멀어 교내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기숙사 올라가는 작은 언덕이 있는 것 외에는 위치와 기숙사 구조, 룸메이트까지 모두 만족스러웠다.

오리엔테이션 주간 이후 8/23 개강했다. 수업 신청은 교환학생 오기 전에 NAU측 코디 선생님이란 메일을 계속 주고 받으며 신청했다. 내가 신청하고 싶은 과목을 메일로 보내면 코디 선생님은 내가 들을 수 있는 수업인지 확인하고 신청한 과목을 등록해준다. 웬만하면 빨리 수강 신청하는게 제일 좋다. 일단 교환학생이다 보니 몇몇 수업은 제한된다. 또, 수업이 다 차면 대기 리스트에 올려주는데, 수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충남대 교환학생은 최소 12학점 들으면 되는데, 일단 적어도 5-6과목 (15-18학점 정도)을 미리 신청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개강 첫주에 모든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수업 계획이 벅찰 수도 있다. 모든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수업을 취소하는 것이 교환학생 기간동안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개강 첫 주에 새 수업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개강을 했으니, 이미 찬 수업이 많아 그 전보다 선택권이 훨씬 더 제한될 것이다.

교환학생으로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점이 과제였다. 4과목을 수강했으며 모두 다 매주 과제가 있었다. 첫 2-3주 정도는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할지 몰라 좀 버거웠다. 그 후 미리 교재를 읽어두거나 수업자료를 보며 과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과제가 매주 있고, 시험점수의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 시험기간의 압박이 덜했다. 매주 복습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시험을 한달에 한번 자주 보기 때문에 범위도 그렇게 많지 않다. 과제와 시험 얘기만 들으면 매일 공부만 해야하고 점수 관리도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NAU는 점수와 성적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관리에

있어 크게 힘들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마케팅 수업 중 총점이 1300점인 수업이 있었다. 한 학기동안 세 번 본 중간고사는 각 50점씩, 기말고사는 100점, 그룹 과제는 150점이다. 이 외 나머지 점수들은 출석과 과제에서 받을 수 있다. 1300점 중 1170점만 넘으면 A를 받을 수 있다. 꾸준히 출석과 과제를 하고 시험은 본인이 최선을 다하면 좋은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체계이다. 또 교수님들이 가끔 추가 점수를 주는 과제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씩 한다면, 점수 관리는 더 수월할 것이다.

NAU 수업에 적응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일단 새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자극이 되었다. 교수님도 학생들 질문에 답을 잘해주며, 학생들과 소통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 더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토론 형식의 수업이면 내 의견을 발표 해보고, 교수님과 더 얘기하고 싶으면 수업 끝난 후 남아서 같이 대화도 했다. 같은 수업 듣는 친구랑 같이 과제를 하며 더 배우게 되었다.

NAU에서 공부 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있다. 먼저, 동아리 활동. 동아리 가입은 개강 첫 주에 있었던 Club Fair를 통해 할 수 있었다. 이 날을 놓쳐도 SNS 계정을 찾아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처음에 여러 동아리를 가입했지만, 실제로 활동한 동아리는 수영과 사진 동아리였다. 수영 동아리에서는 매일 같은 시각에 2시간 동안 수영 연습이 있다. 자기가 시간 되는 날 자유롭게 가서 수영하면 된다. 동아리다 보니 자기 역량만큼 운동하면 된다. 동아리 회장과 부회장이 그날의 운동량을 정해주는데 매년 격려해줘서 내 역량보다 더 하고 싶은 욕심도 생긴다. 사진 동아리는 2주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다. 모임 때마다 테마에 맞는 사진을 찍어 서로 공유하거나 사진과 관련된 활동 (포토샵, 스튜디오 촬영)을 했다. 한 학기 동안 세 번 정도 출사를 나갔다. 또 다른 활동은 학교에서 여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 이벤트에 관한 정보는 NAU의 공식 계정에 들어가면 쉽게 얻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nau.lab) 국제학생들을 위한 이벤트는 메일로 개인적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교환학생 기간동안 홈커밍과 할로윈 이벤트를 즐겼다. 그 외 풋볼경기, 영화 관람 이벤트도 있다. 풋볼 경기는 2-3주에 한번씩 토요일마다 열리며 그 전에 표를 구매해 관람하면 된다. 영화 관람은 NAU가 여는 무료 영화이다. 안타깝게도, 이 두 이벤트는 직접 체험하지 못해 자세한 후기는 없다.

NAU를 한 학기 동안 다니면서 느낀 점은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모든게 새롭고 도전하는 것 투성이라 하루하루를 정말 뜻깊게 보내고 싶은 욕구가 높았다. 몇가지 아쉬웠던 점도 있었다. 수업을 12학점만 들은 점이 좀 아쉬웠다. 영어로만 공부하는 것이 두려워 4과목만 수강했지만, 조금만 적응하면 크게 버겁지도 않았고 미국 관점으로 배우는 경영학도 더 배우고 싶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또 다른 점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먼저 다가가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그 짧은 한 학기동안 최대한 많은 관계를 만들었으면 더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라는 기분이 들었다.